

삿포로 참사 경험한 박주호 “흠 열기에 놀리면 안 돼”

“승리로 플러스 돼 예선 준비 시기 됐으면”
공격수 나상호 “한일전 중요성 잘 알고있어”
10년 만의 한일 친선전...내일 오후 키오프

10년 전 삿포로 원정 참사를 경험했던 축구대표팀 베테랑 수비수 박주호(수원FC)가 일본의 흠 열기에 놀리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주호는 23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삿포로 때 흠 열기가 굉장했다. 열기에 놀리지 않고 버티면서 우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선수들이 기술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많다. 잘 마크하면서 선제 실점을 안 하면 우리에게도 찬스가 나고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초반 분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일본과의 친선경기에서 0-3으로 완패했다. 37년 만에 당한 3점

차 충격패는 ‘삿포로 참사’로 기억된다.

이번 소집 명단 중 삿포로 원정에 뛰었던 선수는 박주호와 함께 김영권(강화아사카), 남태희(알사드),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 4명이다. 어느덧 고참급이 된 박주호는 “2019년 동아시아컵 한일전에 이겼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했다. 우리도 기술 있는 선수가 많아 좋은 모습을 나올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평가전을 치르지 못한 베투호는 한일전을 통해 오는 6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등 유럽파와 일부 주축 선수들이 빠져 ‘반쪽 대표팀’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주호는 “새로운 선수도 있고, 기존 선수도 있다. 다 같이 이 경기를 잘 이겨내면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감독님도 여러 선수를 볼 기회가 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안에 속할 수 있다. 팀이 잘돼야 개인도 이득을 본다. 모든 선수가 한일전 승리로 플러스가 돼 한국으로 돌아가 예선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일전에 대해선 “감독님이 원하는 건 기존에 했던 모습이다. 나이는 고참 선수지만, 어린 선수들과 어울려서 술선수법하고 열심히 하면 어린 선수들도 힘을 낼 수 있다”며 “경기를 뛰든 안 뛰든 대표팀이란 자리는 소중하다. 대표팀에 오려는 동기 부여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일본 원정에 대한 팬들의 걱정도 크다. 박주호는 “어려운 상황인 걸 모두가 안다. 하지만 모든

스태프가 최대한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경기와 훈련을 도와준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베투호 공격수 나상호(서울)도 한일전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한일전은 선수들도 스스로 중요성을 알고 있다. 꼭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사히 일본에 도착했다. 코로나19 과정보다 진행하니까 큰 불편함은 없었다”며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 스태프의 방역 수칙에 따르면 문제가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년엔 일본 클럽에서 뛰었는데,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이번 시즌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나상호는 시즌 초반 3골로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그는 “소속팀 활약을 대표팀에서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년에 일본 클럽에서 뛰었는데,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축구대표팀 베테랑 수비수 박주호.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한일전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울루 베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2일 출국해 일본에 도착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일본 공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전원 음성이었다. 또 코로나19 검

사로 공함을 나오기까지 2시간가량 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은 첫날 약 40분가량 훈련을 진행하며 한일전을 대비했다.

한일전은 오는 25일 오후 7시20분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뉴스

KIA, 양현종 부재가 낳은 선발진 6개 시나리오

윌리엄스 감독 “1~2선발 제외하고 유동적”



“1~2선발 제외하고 유동적이다”.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동시 1~2선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발요원들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용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2일 창원NC파크에서 만난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21일 삼성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 등판한 장현식과 김현수의 투구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선발로 등판한 김현수는 3%이닝동안 3사사구 3탈삼진 무피안타 1실점

으로 막았다. 세 번째 투수로 나선 장현식은 3이닝 3피안타 3실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현수가 굉장히 좋았다. 1회 볼넷과 몸에 맞는 볼을 내주었으나 안타없이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했다. 장현식은 실책이 안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았다. 두 투수는 전체적으로 다 체크했다. 모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임기영과 이민우는 선발진에 일찌감치 낙점했다. 장현식과 김현수가 신인 이외리와 함께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선발진이 넓칠 수 있다. 퓨처스 팀에서 실전에 나서서 좌완 김유신도 있다.

선발요원 2명을 1경기에 붙여 출전시키는 1+1 전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진 1+1 전략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 1~2선발 제외하고 다양하게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옵션들을 보고 있다. 내 책상에는 6개의 투수로테이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선발조 준비했던 선수들은 다 기용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매치업에 따라 모든 투수들을 가능한 옵션으로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에런 브룩스와 다니엘 멧텐을 제외하고 이닝이타형 선발투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경기당 6~7이닝씩 소화할 수 있는 양현종의 부재가 만든 전략일 수도 있다.

가용 옵션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영건들을 향후 완전한 선발투수로 키우는 방향이다.

‘타율 0.103’ 김하성, 좌익수 출전 예정...내야 경쟁서 밀리나

2루수 경쟁자 크로넬워스, 시범경기 타율 0.333

미국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타격 부진으로 고전 중인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내야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양새다. 구단은 그를 외야수로 테스트한다.



디에슬레틱은 23일(한국시간) “2800만 달러(4년 보장 연봉)의 내야수 김하성은 다른 수비도 맡는다. 김하성은 이번주 좌익수로 몇 차례 나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내야수 김하성이 외야수로 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샌디에이고 구단은 김하성의 운동 신경이 뛰어나고, 제이크 크로넬워스가 내야 경쟁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김하성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하성은 지난해까지 KBO리그에서 주전 유격수로 뛰며 3루수도 종종 소

용했다. 샌디에이고로 가면서는 2루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구단은 지난해 2루수를 맡았던 크로넬워스와 김하성을 두고 저울질했다. 수비가 탄탄한 김하성은 시범경기 동안 2루수는 물론 유격수, 3루수로도 뛰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문제는 타격이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만난 김하성은 연일 타격 부진으로 고전 중이다.

시범경기 13차례 출전했으나 타

율은 0.103(29타수 3안타)로 가까스로 1할대 타율을 유지 중이다. 볼넷 4개를 고르는 동안 삼진은 11개를 당했다.

타격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내야 경쟁에서도 힘을 잃었다. 김하성의 2루수 경쟁자로 주목 받았던 크로넬워스는 시범경기에서 13경기 타율 0.333(30타수 10안타) 4타점을 기록 중이다.

구단은 김하성을 외야수로 기용, 멀티 백업 요원으로 기용할 방법을 찾는 분위기다.

디에슬레틱은 “김하성은 투수들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구단은 김하성의 보이지 않는 발전에 고무되었지만, 김하성은 시범경기에서 타율 0.103, 출루율 0.212, 장타율 0.103에 머물고 있다. 김하성은 무엇보다 한국과 애리조나의 시차에 적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배수의 진’ 기업은행, PO 3차전서 대역전극 연출하나

흥국생명 2차전서 3-1 승리
오늘 챔피언결정전 티켓 싸움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IBK기업은행이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2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도드람 2020-2021 V-리그’ 플레이오프(3전 2선승제) 2차전에서 3-1(25-6 25-14 20-25 27-25)로 승리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부진 끝에 흥국생명에 패했던 기업은행은 2차전을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업은행은 2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챔피언결정전 티켓을 노린다.

이날 기업은행은 1, 2세트에서 흥국생명을 압도했다. 공수 조직력이 완벽에 가까웠고, 라자레바와 표승주, 김희진, 김주황 등이 맹위를 떨쳤다. 백업 세트 김하경마저 안정적인 토스 위크를 선보였다.

반면, 흥국생명 주포 김연경과 브루나는 1, 2세트에서 기업은행에 꼼꼼하게 원할한 득점을 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3세트부터 조직력이 흔들렸지만, 4세트에서 약삭 같은 근성으로 흥국생명의 기세를 꺾었다.

분위기를 바꾼 기업은행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기선을 제압해 다시 한 번 흥국생명을 꺾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 김우재 감독은 2차전을 승리한 후 “고참들을 필두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



22일 오후 경기 화성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V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 1세트, IBK기업은행 선수들이 득점을 올린 후 기뻐 하고 있다.

다”고 말한 후 “단기전은 첫 세트가 중요하다. 서브, 오더 싸움 등 여러 가지가 승부에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6점을 올린 표승주와 세터로 나선 김하경 역시 챔피언결정전 진출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표승주는 무릎 부상으로 통증을 참고 있으면서도, 아직 볼배구를 끝낼 생각이 없다. 힘겹게 플레이오프에 오른 만큼 반드시 최종 무대에 오르고 싶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표승주는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오래 오래 배구를 하고 싶다. 상대도 서로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할 것이다. 안정된 리시브 등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하겠다. 어렵게 올라온 만큼 챔피언결정전

에 오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하경은 2차전에서 깜짝 세터로 나왔지만, 감독과 선배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김하경은 “토스가 잘 안된 경우에도 공격수들이 잘 처리를 해줘서 부담감이 풀려졌다. 3차전이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 꼭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라자레바 역시 타점 높고, 빠른 스파이크를 강타하며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희진은 팀의 센터 라인을 강화하며 다시 한 번 흥국생명을 잡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이 2016-2017시즌 우승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지 배구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스

STL감독 “김광현 시뮬레이션 게임서 날카로운 투구”

개막 로스터 합류도 청신호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한국시간) MLB닷컴, KSD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광현은 시뮬레이션 게임에 등판해 2이닝을 소화했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의 투구에 대해 “체인지

업이 정말 좋았다. 슬라이더, 직구의 움직임도 좋았다”며 “기복이 있었지만 날카로운 투구를 했다”고 호평했다.

개막 로테이션 합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던 김광현은 최근 등 통증을 느꼈다.

다행히 부상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16일 투구 훈련에 복귀,

캐치볼을 실시했다. 19일과 21일, 두 차례 불펜 피칭도 했다.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컨디션을 조율한 김광현은 이제 실전 경기에 나서야 한다.

실트 감독은 “김광현이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면 이번주 시범경기에 나서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김광현이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